이렇게 들었다

II 역사왜곡과 양심

왜 부끄러운줄 모를까

▨부끄러움도 모르고 안이하게 살아, 긴 부리를 놀려 시끄럽게 울어대는 까마귀처럼 뻔뻔스러워서, 돌아오는 치욕도 치욕으로 알지 못한다면 이것은 더럽게 사는 일이다. 염치있게 살기 위해 비록 고생을 할지언정, 義를 취해 청백하며 부끄러움을 피해 간사스럽지 않으면, 이것은 깨끗하게 사는 것이다. 〈법구경〉

▨어떤 사람은 한적한 곳에서 악행을 하다가 부끄러운 일임을 깨닫고 스스로 뉘우쳐 제가 한 일을 남에게 말한다. 마치 까마귀가 더러운 것을 먹고 주둥이를 씻는 것과 같다. 어떤 사람은 한적한 곳에서 스스로 악행을 하고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뉘우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뽐내고 자랑한다. 마치 돼지가 더러운 것을 먹고 더러운 곳에 누워 있으면서도 다른 돼지 앞에서 뽐내는 것과 같으니라. 〈증일아함경〉

이 두 경전의 말씀은 마치 '양심없는 일본'에 대한 꾸짖음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양심'에 따라 행동할 것을 가르치셨다. 그리고 양심을 지키는 것은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하셨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우리는 흔히 '양심없는 사람'이라고 한다. 양심을 속이는 사람들의 속성은 참회에 인색한 것이 특징이다. 인색하다 못해 부끄러움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다. 일본이 바로 그렇다.

최근 일본은 물론 한국을 비롯한 동남아국가에서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다. 현재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학교 역사교과서가 역사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용인즉, 일본의 한국합병이 국제관계의 원칙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는 내용이 버젓이 실려있는가 하면, "한국은 일본지배 덕분에 저만큼 살게 됐다"는 식의 황당한 주장도 들어 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일본군의 잔학행위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으며, 일본의 침략전쟁을 '아시아 해방전쟁'이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이쯤되면 속된 말로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언제 일본에게 잘살게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는지, 아시아 국가들이 언제 해방시켜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는지, 황당하다 못해 웃음마저 나온다.

〈수십선계경〉을 보면 "열 가지 악업 중에 그 으뜸이 살생이요, 둘째는 도둑질하는 일이요, 셋째는 사음하는 일이요, 넷째는 거짓말하는 일이요…"라는 부처님 말씀이 있다. 일본은 전쟁을 통해 살생은 물론 약탈, 성폭력 등 가장 나쁘다는 세 가지 악업을 모두 지었다. 그리고 이제는 양심을 속이고 거짓말까지 해가며 네 번째 악업까지 지으려 하고 있다.

〈증일아함경〉의 말씀처럼 일본은 자신의 더러움도 모른 채 뽐내는 돼지가 되지 않길 바란다. 그대들의 '양심'있는 후손들이 자신들의 역사교과서에 그 대들을 '돼지'로 적을지도 모를 일이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불자 세상보기

'인터넷'을 '인드라넷'으로 바꿀 수 없나
(Indra Net)

성기서
서원대 교수
영어교육

요즘 일간지에서는 우리나라가 정보화 최강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야단이다. 인터넷 이용 인구가 1900만명이나 된다니 그럴만도 하다. 그 덕분에 옛날의 도인들이나 부렸다는 천안통(天眼通)과 천이통(天耳通) 같은 신통력을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제한적인 분야에서이지만 마음껏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는 정보의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은 인터넷에 대한 윤리의식을 기를 사이도 없이, 그 유익한 열매를 제대로 즐기기도 전에, 그 해로운 열매를 먼저 거두고 있다. 특히 이러한 문명의 이기를 다루는 "가상공간에서도 윤리는 존재한다"는 의식이 미약한 청소년들이 인터넷 이용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기에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실제로 최근 나온 자료에 의하면, 사이버범죄의 과반수가 10대 청소년에 의해 저질러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10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검거된 사이버범죄자 187명 중 10대가 97명으로 52%를 차지해 불법해킹과 인터넷을 통한 사기 등 대부분을 10대 청소년이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음란물 판매, 원조교제, 자살 사이트 운영 등 자신과 다른 사람을 망칠 뿐 아니라, 사회를 병들게 하는 범죄행위에 대부분의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관계하고 있다.

원조교제 · 자살사이트
청소년 사이버범죄 급증

이러한 사이버공간에서 청소년의 범죄가 급증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익명성과 이에 따른 높은 비밀보장성일 것이다. 남이 보지 않고, 법망에 걸리지만 않으면 나쁜 짓을 얼마든지 해도 좋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기 쉬운 공간이 바로 인터넷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러 시민단체에서는 이미 사이버 범죄를 없애기 위해 유해 사이트에 대한 감시와 통제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불교계도 이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청소년의 인터넷 범죄에 대하여 불교계에서는 불교다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긍정적이고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혜를 길러주기 위해, 철저한 윤리의식인 계율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우선 인식해야겠다. 계율은 어디서든지 나와 남을 동시에 지켜주는 윤리적 율타리이기 때문이다.

유해사이트 감시 · 통제
유익한 정보창구로

〈법구경〉 1장에서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왔고, 마음은 모든 것에 앞선다.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 나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그 뒤에는 슬픔이 따라오기 마련이다"고 했다. 이것은 모든 윤리의식의 기초인 선과 악의 뿌리를 가리키고 있기에, 비록 이 세상을 떠나 욕계 · 색계 · 무색계를 포함한 모든 법계에서도 두루 통하는 보편적 법칙이다.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바로 삶의 보편적 원칙인 '선인(善因)에 선과(善果)가 따르고 악인(惡因)에 고과(苦果)가 반드시 따른다는 연기법'을 바르게 인식시킬 의무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어른들이 계정혜를 닦고 실천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그런 후에야 청소년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들을 자연스럽게 바라보고 바람직한 길로 이끌 수 있다. 그래야만 '마(魔)의 인터넷'을 '화엄법계의 인드라 넷(Indra Net, 帝網)'으로 바꿀 수 있다.

열 린 마 당

주지 인사고과제도

조계종 포교원이 14일 배포한 〈지역포교리포트〉의 내용을 보면 지역포교활성화를 위해 고과제도의 실시 등 주지 인사제도의 변화가 문제해결의 근본임을 보여주고 있다. 주지스님의 역량과 의지에 따라 포교활동의 정도가 달라지는 시점에서 사찰의 잦은 주지 교체는 오히려 포교사의 연속성을 단절시키는 가장 큰 요인임이 드러났다. 몇 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주지고과제도의 도입과 실시에 대한 의견을 들어본다.

"지역포교 활성화 기여할듯"

명조스님 〈조계종 포교연구실장〉

이번에 포교원에서 실시한 지역포교활성화 방안연구에서 종단적 과제로 제기된 문제 중의 하나는 주지 인사제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변화의 핵심은 주지인사에서 객관적인 평가의 기준이 정해지고 이에 따라 주지인사가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찰의 운영과 포교성과에 대한 투명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재임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역포교의 큰 성과를 거둔 스님이 교체된 이후 새로 부임한 스님에 의해 축적된 성과가 폐기되는 사례가 많이 있었다. 이런 점은 포교의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주지의 재임이나 교체시 그 평가기준이 성립되고 그 평가의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지역포교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하였는가, 지역에 얼마나 회향했는가를 척도로 삼아야 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주지 인수인계시에 각종 비품이나 재산목록 등 유형의 재산에 대한 점검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현황과 정서, 신도의 현황과 포교의 현실 등 무형의 자산에 대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규정이나 근거 역시 시급히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포교의 원력을 가진 주지스님들이 많이 배출되어야 하고 그 성과를 유지,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종단의 과제이다. 따라서 승가교육의 틀도 포교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계발하는 교육중심으로 변화하여야 하고, 종단의 각종 제도 역시 내용위주로 개선,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지인사 고과제의 실시와 그 주안점을 포교의 업적과 역할로 삼는 것이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업적 평가 객관성 유지 관건"

황진수 교수 〈한성대 행정대학장〉

주지스님의 고과도입 문제를 행정학의 이론에 비추어 본다면 능률성의 원리에 해당된다. 능률성과 민주성의 쟁점에서 우리는 어느 편에 손을 들어줘야 하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주지스님은 임기 동안의 업적을 평가받아서 연임 또는 경질시켜야 된다. 과거 본산 중심의 지역 할거주의가 농경사회의 불교 존속과 포교에는 적합하였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아니다.

물론 업적 평가는 객관적, 과학적, 합리적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평가기관에서는 주지스님의 사찰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조목조목 정리하여 점수화하고, 일정 점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과감히 교체해야 한다. 평가 사항은 조직장악력, 예산 · 결산의 명료성, 사찰운영의 투명성, 포교사업의 성과 측정, 신도 및 주민의 여론 수렴을 통한 평판 측정 그리고 불교의 차원에서 인재양성 성과 측정, 정보화의 정도와 함께 총무원 및 본사주지스님의 평가 등도 함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주지 스님의 업적평가가 표면상의 원칙만 내세우다 보면 자칫 우(愚)를 범할 수 있다. 종단 사정의 전후좌우를 살펴가면서 현재의 본사중심체제의 틀을 깨지 않고 합리적인 대안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종단차원의 업적평가위원회를 만들고, 위원회에서는 업적평가기준, 실시 시기와 방법 등을 논의하고 범종단적 차원에서 논의한 뒤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지스님 한 사람으로 인해 지역불교가 일어나고, 거꾸로 주지스님 한 사람으로 인해 지역 불교가 죽고 있다. 이를 확대 해석하면 주지스님 한 사람에 불교의 사활이 달려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인사(人事)는 만사(萬事)라 하지 않았는가 싶다.

기고

"사회 첫발 디디며 설렘과 두려움 열심히 하면 되겠지"

김민주
동국대 지리교육과 졸업

어느덧 4년이란 대학생활을 마치고 사회에 발을 디디게 되었다. 동국대학교 지리교육과에 입학해 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전심전력했던 4년이 훌쩍 지나가버린 지금, 어느 정도 희망을 싹틔웠다는 느낌도 없지 않다. 지난해 12월에 치러진 임용시험에서 합격해 당당히 사회(지리)교사가 되었다. 이제는 학생에서, 선생님으로 내 모습이 바뀌게 됐다.

다가오는 3월, 경기도 어디에선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을 내 모습을 상상하면 흥분을 감출 수 없다. 하지만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기도 한다. 스스로 선택하고 성취한 것이지만 '정말 내가 학생들을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학교라는 사회에서 제대로 적응할 수 있을지 염려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학생이란 신분은 일종의 특권처럼 통한다. 아무리 잘못을 해도 학생이기 때문에 용서가 되고 한 번쯤 눈감아주는 관용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는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안다. 냉소적이고 경쟁적이고, 완벽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사회생활의 본질이기에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을 올바르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사는 아직 성숙되지 못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춰야 할 '가르치는 능력' 이상의 인격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그것을 키우기 위해서는 교사가 되기 위해 투자한 4년이란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나를 위해 또 학생들을 위해 투자해야겠다는 책임감도 느낀다.

설렘, 두려움, 결심 등등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느낌은 평생동안 지금 이 순간에만 누릴 수 있는 감정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소중한 기억과 새로운 결심을 사회에 나가서도 잊지 않는 사람, 나 자신에 대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교사가 되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한다.

가야산 법보종찰 해인사 대범

천년을 이어갈 맑은 「범음」
장인정신
종종사는
오직 鐘만을
생각합니다.

중량 3,300관

鐘 宗 社
서울 사무실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40 청송 302호 ☎ 02)725-0878
공 장 : 충북 청원군 북이면 석성리 460 ☎ 043)212-0903